

지역 매 아리

시민체감형 열린시정 추진

김제시-제주시 '상호협력 축제발전' 회의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8일 제주시청 관광진흥과에서 김제지평선축제와 제주 들불축제 간 상호협력력을 통한 축제발전을 도모하는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축제팀장을 포함하여 제주시청 관광총괄과장 등 지평선축제와 들불축제를 총괄하는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 축제 소개를 시작으로 2019년 양 축제의 추진 방향과 대표 콘텐츠 소개, 상생 협력 방안 논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제지평선축제는 2년 연속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된 명실상부 대한민국대표 축제이고, 제주 들불축제는 우수축제에서 2019년 최우수 축제로 등극한 제주도 대표 축제로 이번 회의에서는 양 축제 대표 콘텐츠 도입과 축제 기간 상호 축제 홍보 및 양 지역 농·특산물 홍보 부스 제공, 축제 홈페이지 축제 공동 홍보 등 축제를 통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축제 기념품 제작과 상호 축제 기념품 교환 제공, 제주시 김제시 간 지역 홍보 협약 체결과 김제시 제주시 간 농·특산물 교류 판매 등 단순한 축제 교류를 넘어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축제를 통한 양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등 열린 토론을 펼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민선7기 새해 시정 비전 설명



김제시는 8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19년 민선7기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8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박준배 김제시장 및 국·소·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민선7기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선7기 출범 후 성과 및 2019년 시정설계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고 지역현안과 시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됐다. 금년도 슬로건을 다함께 열어나가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정하고 오늘 진행 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제시의 경제구상 및 남은 3년 시정의 기본을 세우고 나아갈 길을 정했다.

그동안 추진했던 2018년도 성과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국가예산 최대규모 7,081억원 확보, 지평선축제와 국제종자박람회 성공적 개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전면 시행, 정부혁신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33개 시정 여러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거두었다.

민선 7기 2년차를 맞이한 김제시는 기본을 세우고 나아갈 길을 정한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마음가짐을 가

지고 앞으로 7대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견인, 신성장동력산업 구축으로 새만금 경제중심도시 도약, 스마트농생명산업 육성으로 첨단농업 메카 조성, 누구나 향유하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 실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구현, 상생과 평화의 고품격 글로벌 문화관광 선도, 혁신과 소통으로 시민체감형 열린시정 전개 등 제시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이며 경제는 사람들의 삶과 관련이 있고 삶이 개선되어야 시민들의 만족도 올라갈 수 있다. 정의와 경제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가 경제를 활성화 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현장 경제를 활성화 하는 세부적인 정책들을 이루어 나가 핵심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8일에 2019년 신임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 문순자 회장 취임식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문순자)는 8일에 2019년 신임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박준배 김제시장, 윤주현 김제시의회의장, 임암순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각 기관단체장 및 많은 내외빈이 함께 하여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다. 문순자 신임회장은 김제시새마을부녀회장으로 현 전라북도새마을부녀회 부회장도 역임하고 있으며 용지면에서 남편과 양계농장을 운영한다.

또한 사회복지경영학과 졸업, 그 바쁜 일상에서도 현재 야간대학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소통과 합리적인 사고로 조직을 이끌어 가는 등 주변의 평가 또한 우수하다.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21개 단체 1,719명의 회원이 김제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 왔으며,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캠페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신임 문순자 회장은 취임사에서 '김제시 미래를 위해 여성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 일자리, 돌봄, 문화, 안전 등의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김제시 여성단체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남녀노소 세대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김제시 발전을 위해 모두가 화합 하라고 호소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완주에 사랑의 PC 전달

국민연금공단이 완주군에 사랑의 PC를 전달했다. 완주군은 8일 국민연금공단의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랑의 PC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연한이 지난 PC를 부품 교체하고, 재조립해 재생된 PC 50대와 신제품 프린터 10대를 완주군에 전달했다. 전달받은 PC는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정보화마을, 마을공동체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문원영 부군수는 "사랑의 PC 나눔이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사회복지시설 64개소를 매월 방문해 PC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을 비롯해 한곡전기안전공사 등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노후 PC를 재생해 시설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또한 매년 노후 PC를 (사)한국IT복지진흥원과 협력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생해 정보화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15일까지 민선7기 비전 담임 발전방안 논의 등

완주군이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 실현을 위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 들어갔다.

완주군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6일간 군수 주재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완주군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할 민선7기 비전이 담긴 410개의 주요업무에 대한 점검과 발

전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15만 인구달성을 위한 혁신도시 2.0, 테크노밸리 2단계, 삼봉신도시, 복합행정타운, 신규주택 공급,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맞춤 인구정책 등 신규 인구유치 방안을 더욱 현실화해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완주군은 오는 15일까지 박성일 군수 주재 부서별 주요업무 점검

이외에도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트레싱스',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트레싱스', 잘사는 농업농촌·농민중심 '농도피아' 완주 등 민선 7기 군정 3대비전의 완성도를 높이고 으뜸복지, 미래세대 육성, 으뜸안전도시, 청년완주, 평화와 자치분권 등 군민 행복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군정 5대 핵심 정책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모바일 완주 실현을 위해 테크노밸리 2단계와 중소기업 농공단지 조기 선 분양 추진, 수소산업 육성 등 첨단기업 유치, 완주형 사회경제적 '소셜굿즈' 추진을 비롯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허브구축 등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를 만들어나간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으로 완주관광 1천만 시대를 준비하고, 전국 최고수준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주민참여형 문화육성,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2단계 등 모두가 행복한 르네상스 완주를 추진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중소형 농업기계지원 접수

발작물 관리기·경운기 등 구입액 50% 지원

완주군이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덜기 위해 중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을 이달 중순까지 신청 받는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중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발작물 관리기, 경운기, 건조기, 동력살분무기 등 5종에 한해 농업인이 1인당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구입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은 매년 중소형농업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년과 같이 총 4억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편의를 돕는다.

최근 3년 이내 500만원 이상 수해를 받은 자와 완주군 세외수입 체납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각 읍면에서는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지심사, 읍면 자체 선정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군에 통보하게 된다.

완주군은 지난해 12월 중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을 위해 사전에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김중옥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농산물 가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중소형농업기계 보급을 지속적으로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